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5년도 표어 ◎

교회, 세상의 소망(벧전 2:9-12)

◎ 행동지침 ◎

- 1. 이웃의 등대
- 2. 민족의 구원선
- 3. 세상의 나침반

† 발행인: 이종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I

(시편 16:1-11)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기는 악인들과 교제를 끊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존귀히 여기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만일 조금이라도 그들을 질투의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주일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며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옆에 오시어 “너희의 얘기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들은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지만 우리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바랬다. 그런데 그가 죽은 지 사흘 째 어떤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갔으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왔다. 우리 중 몇 사람도 무덤을 찾아갔으나 여자들의 말처럼 빈 무덤뿐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하시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눅 24:13-27).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위대한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구약 가운데 부활에 대하여 예언된 말씀을 찾아 설교하셨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떤 본문을 택하셨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어 잘 알 수 없지만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본문은 시 16: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후일 베드로가 오순절에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할 때(시 16:8-11), 사도 바울이 안디옥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시 16:10) 등 제자들의 설교에서 자주 인용했던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물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10절).

10절의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신앙적 기초 위에 선언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욥 19:25-26)는 욥의 선언과 비슷합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본문 10절은 구약의 어떤 인물을 묘사한 것이 아니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특히 10절의 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언이 확실합니다.

부활을 기다리나 우리의 몸은 썩을 것이고 다윗의 몸도 썩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내려가셨으나 썩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행 2:31-32).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 행 13:36-37에서 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막담’입니다. ‘막담’이란 교훈시 또는 황금시라는 뜻으로 주옥같은 진리의 말씀이 구구절절이 담겨있다는 뜻입니다.

### 1. 부활을 믿는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2절).

다윗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좋아합니다. 다윗은 환난날 뿐 아니라 평온무사한 날에도 하나님의 품에 머물기를 소원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 방

편으로서가 아니라 일상적 필수품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합니다. 단유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최악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엘로힘, 여호와,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①엘로힘은 전능자를 말할 때 쓰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②여호와(야훼)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타지 않는 가시덤불 나무에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나다(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③주(Adonai)는 지상의 주를 하나님으로 부를 때 사용되었습니다. 주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이 있으시어 피난처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가야 할 방향을 명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할 때 예수님은 전능자, 생사화복의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모든 좋은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약 1:17)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은 모든 것이 무가치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마 16:26)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 구원자, 주의 주로 알지 못한다면 다른 모든 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가장 즐거워했습니다.

### 2. 다윗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결과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3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도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도를 존귀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를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4절).

반면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기는 악인들과 교제를 끊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존귀히 여기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만일 조금이라도 그들을 질투의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틈에서 불을 피웠던 것은 그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기 전에 속히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자녀들과 교제하며 저들을 도와야 합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 다윗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성도들을 존귀히 여기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교회 헌당 감사 14대 행사- 초청감사 찬양제

## 3개 교회 초청,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교회설립 14주년과 함께 헌당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3개 교회 초청 감사 찬양제가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열린다.

오늘 찬양제에 초청된 교회는 새문안교회, 영락교회, 소망교회 등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3개 교회이다. 이들 교회가 오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곡은 다음과 같다.

새문안 교회의 새 찬양대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참여하여 '주의 보혈 능력있도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영락교회의 갈보리 찬양대는 '헨델의 대관식'

과 '시편 150편', 소망교회의 베다니 찬양대는 '내가 산을 향하여', '모퉁이 돌' 등 교회마다 각 2곡씩이다.

그리고 우리교회 임마누엘 찬양대는 '열렸다 하늘 문이'와 '영광 할렐루야' 두 곡으로 찬양을 드리며 그레이스 핸드벨 콰이어도 출연 하여 함께 영광을 돌릴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할렐루야'를 함께 불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

# 일일 선교대회 개최한다

## 11월 21일(월) 오후2시~8시30분, 101호에서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안고 태동한 서울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지상 과제인 세계선교에 앞장서므로 2010년까지 100명의 선교사를 세계 각국에 파송할 예정이다.

이들 중 올해 파송될 선교사들이 각자의 선교 비전을 공유하며 복음전파의 전령으로 사명감과 결의를 다지는 제 1회 서울교회 선교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선교특강, 각 선교사들의 선교비전 보고, 중보기도 후원자 모집, 세계선교현황 영상물상영, 선교헌신예배 등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다.

특히 선교위원회에서는 이들 선교사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로 후원할 중보기도 후원자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선교대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 지도:이규정 목사    대회장:이영기 장로
- 총무:이갑진 장로    서기:전기섭 장로
- 회계:유승순 장로    홍보분과:박두영 장로
- 멀티미디어분과:박두호 장로
- 봉사분과:신용식 장로    안내분과:조정식 장로

# 사명자 특별 새벽기도회

## 11월 14일(월) 부터 26일(토)까지 2주간

50일간 계속되는 사명자 대회가 종반에 접어들었다. 내일 새벽부터 2주간 동안 특별새벽기도회를 갖는다.

이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과 북한 신앙자유를 위한 UN 북한인권결의안 통과를 위해 하루 또는 한 끼 금식하며 기도한다.

찬양대원들의 찬양과 교구별 주력부대가 이 기간 동안 우리의 기도를 더욱 힘차게 할 것이며 이종윤 목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리즈로 선포할 것이다.

추수감사절, 교회설립14주년, 헌당식, 선교사 파송, 암송필사성경 봉헌, 장애인 전문대학 선포식을 앞에 놓고 교회와 국가 그리고 가정과 개인의 문제를 들고 무엇보다 태신자 전도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일에 온 교회가 동참하여야겠다.

# 태신자 명단

사명자 대회 기간에 태신자를 위한 기도와 전도가 계속된다. 이들이 구원을 받도록 온 성도는 함께 기도를 드리도록 한다.

- 권형두 양대곤 진형식 이진기 김진태 박홍식 명숙경 배윤진 홍영표 박대균 권순이 현민엄마 이근용/임혜원 최철규 배상일 김순지 서영석 김복희 윤순조 조형래 최경선 원제만 김만식 송석래 김지수/최미숙 원태식 김주수 이지은 송명숙 진언선 이승훈 이은혜 이은미 김기중 임지는 이남희 신현돈 김정희 이종웅 이지현 라순애 조강숙 최수현 박순옥 이민재 정의대 김혜숙 유성수 장예리/장새록 제국삼 송사례 제홍섭 제영대 제민정 김옥희 김영희 이소연 이상필 박보미 권영순

- 조민제 김세철 김화순 이용우 이재승 문형숙 홍성자 추지민 장옥희 서동욱 오민수 주소윤 문재선 장정운 김지예 백희열 전수정 김소희 김광주 조재학 이종규 김준영 김예지 정연정 태 현 이승곤 최정아 이정연 차인환 최영욱 권민성 손동현 김상범 권오승 김의진 김윤기 성준경 문보라 김예지 이동선 한인철 이성진 김대건 이종규 김준영 안대웅 장규석 전하나 김명진 김동환 이태봉 한재규 이재승 문형숙 홍성자 김혁주 김미숙 김민준 고요한 김일수 안영대 김나운 박준용 하경수 김숙희 진찬욱 연석주 김희원 이원일 박희장 신경희 신소희 신혁수 김대복 이승탁 김만균 박노호

(다음 주 계속)

# 복지법인 명칭 '호산나'로

당회는 우리교회가 설립하기로 한 복지법인의 명칭을 '호산나'로 결정 하였다. 이에 따라 장애우 전문대학 및 대안학교의 명칭도 '호산나'로 부르게 되었다.

호산나 복지법인 준비를 위해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요청된다.

# 교육장소 일부 변경

## 12월 첫째 주일부터

일부 교육부서의 교육장소가 12월 첫째 주일부터 변경된다.

교육장소가 변경되는 부서는 소요리문답부와 장년 4부로 소요리문답부가 802호에서 801호로, 장년 4부가 801호에서 802호로 바뀐다.

# 주일 배식 시간변경

## 12월 첫째 주일부터

주일 점심 배식 시간이 12월 첫째 주일부터 오전 11시 15분부터 시작 된다.

# 젊은이들의 축제에 은빛 찬양대 특별출연

## 11월20일(주)에 열려

11월20일(주일)에 열리는 젊은이들의 축제에 은빛 찬양대가 특별 출연을 하여 손자 손녀 같은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교회의 기쁨에 동참하게 된다.

# 사명자 특별새벽기도회

## 봉사분과

봉사분과는 사명자 특별새벽기도회 기간 중 아침식사 봉사를 담당하게 된다.

- 책임: 이관규 장로
- 총무: 이계홍 집사
- 실행위원: 임옥근 홍재식 이영희 김영식 김혜란



UN 북한인권결의안 찬성 촉구 촛불 기도회

#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인가?

지난 11월10일(목) 저녁 6시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한 광화문 네거리에 삼삼오오 모여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UN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찬성을 촉구하는 촛불 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설교를 맡은 이종윤 목사님은 '누가 강도만난 자의 이웃인가?' 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 정부나 국민이 강도 만나 빈사상태에 이른 사람과 닮아 없는 북한의 백성들을 보고도 못 본체 한다면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았다고 말씀하며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사마리아 인과 같은 EU에서 오히려 UN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한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이제는 침묵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도록 기도하고 이 나라 백성과 정부가 북한의 수용소와 잔인한 방법에 의한 공개처형하는 등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이번에는 기권하지 말고 반드시 결의안에 찬성을 하도록 촉구하였다. 특히 북한당 만난 이의 참 이웃은 UN도 EU도 대한민국이 아닌 우리 주님이시다고 말하고 주님 업고 갈터이니 주님께 기도하자고 외쳤다.

이어진 순서에서 서경석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는 "우리와는 상관도 없는 유럽 연합이 북한인권결의안을 제



출했는데도 우리 정부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민주화운동을 계승했다는 현 정권이 지금의 북한 주민을 보고는 '빵을 줄 테니 당신들은 빵만으로 살아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탈북자 임영성씨는 "지금 북한 인민은 쌀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유와 인권이 없어 죽어간다"며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비판했다고, 남한 방송을 들었다고,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정치범수용소에 20만 명이 갇혀 있는 현실을 정부는 외면하지 말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참가단체들은 "한국정부가 국익을 이유로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외면하는 것은 국민의 명예와 자긍심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는 요지의 결의문을 김상철 장로가 발표하였다.

이날 모인 이들의 손에 쥐어진 작은 촛불처럼 우리의 힘은 비록 약하고 희미하지만 작은 불꽃 하나가 큰불을 일으키어 온 산을 태우듯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메아리치는 외침이 아닌 이 나라의 수많은 무관심한 백성과 현 정부가 무엇이 옳은 일인 줄을 바로 깨달아 바른 정신으로 바른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유태서(편집부)

사명자대회150일연속기도  
-자녀를 위한 아버지의 기도

## 이런 자녀가 되게 하소서

노훈환 장로(11교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두 사남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따라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주시고  
자녀들이 자라는 동안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잘 자라게 하고  
이제는 어엿한 청년들이 되어서  
믿음의 진보를 사람들에게 증거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장성한 믿음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흐뭇함을 주시고  
이제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심을 따라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의 자녀들에게도 약속의 자녀들을 주시어서  
손 자녀 들을 가슴에 안고  
감사의 기도를  
축복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자녀 손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유혹은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고  
육신의 정욕은 피해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는 일에는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을 따라가는 일은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계대를  
계속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목회자세미나를 수료하며

## 한국교회를 지키는 등대로 우뚝서기를...

양중만 목사 (선안목자교회)

목회자들은 신학교에서 신학의 과정을 통해 조직신학으로 배웠고 교회사 등 많은 과목을 이수하고 목회의 현장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배워야 할 성경은 차분히 공부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는데 서울교회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세미나를 운영하여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특히 이종윤 목사님은 정통신학의 거장이시며 성경 지식이 바르고 풍부하여 언제 들어도 깊고 놀라운 말씀들을 뽐내실 뿐만 아니라 바른 신앙인으로 배우는 후진 목회자들의 모델이 되어 교회 앞에 우뚝 서 계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면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얼마 전 저는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가 사는 지역의 모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매주 천여 명씩 모여서 성경을 배운다는데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기가 속한 시찰장이 그곳에 가서 성경을 공부한 뒤로 목회가 활력을 얻고 몰라보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서 등록하는데 목회경력 22년이라도 성경공부 초보자 과정을 등록하라고 할 때 조금 고개가 가우뚱 거러졌습니다.

강사가 나와 강의가 시작되는데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이 입을 크게 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말씀이 그 입 안으로 쪽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말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앞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정말 입이 찢어질 정도로 벌리고 성경을 입으로 먹겠다고 소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저히 들을 수 없을만큼 성경이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어떻게 그 많은 목회자들이 거기에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유린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직접 목격하면서 저는 통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목회가 힘드니까 이상한 방법을 배우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료생의 한 사람으로 교회갱신연구원의 목회자신학세미나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등대로서 전국을 비추는 말씀의 빛으로 우뚝 서 있어야 합니다.

한 시간 반짜리 강의원고를 위해 20시간 이상을 투자하신다는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지만 그래도 목사님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담백 담긴 음식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안내를 맡으신 분들, 묵묵히 자신의 삶을 비우고 교회를 위해 아니 저희 목회자들을 위해 수고해 주심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서울교회 위에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헌당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